

# 내가 다시 태어났다



쓰라린 실패를 안고 생을 마감한 주인공이 다시 태어나 '인생 2회차'를 시작한다. 안방극장에 다시 회귀할 열풍이 불고 있다. 31일 방송가에 따르면 지난해 최고 히트작인 '재벌집 막내아들'이 자체 최고 시청률 26.9%로 막을 내린 지 1년여 만에 잇따라 회귀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이재, 곧 죽습니다' (이하 '이재, 곧')는 주인공이 '인생 n회차'를 경험하는 과정을 속도감 있게 풀어내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재, 곧'은 주인공 최이재(서인국 분)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음에 이른 별로 죽음(박소담)이 내린 심판에 의해 처벌받는다 내용을 그린다. 죽음이 내린 벌은 죽음을 앞둔 열두 명의 몸 안에 들어가 열두 번의 죽음을 경험하라는 것. 다만 다가오는 죽음을 피하면 그 몸으로 남은 수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이미 한번 목숨을 끊었던 최이재는 대기업 후계자, 영화 같은 인생을 사는 폭력조직 소속 암살자, 잘생긴 외모 덕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온 모델 등의 몸으로 다시 깨어난다. 전보다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긴 최이재는 다시 살고 싶어진다. '인생 n회차'를 거듭하면서 경험치가 쌓이고, 눈앞의 '죽음'을 속

'이재, 곧 죽습니다'·'내 남편과...' 웹툰 원작...안방극장 회귀물 열풍 '이번 생은 망' 정서 청춘들 대리만족

이제는 반격을 시작한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인생과 죽음에 대해 생각 해볼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다", "그런데도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매화 스토리가 개연성 있고, 전개가 빨라서 몰입감 있다" 등의 호평이 나온다.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도 심심치 않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아마존프라임비디오를 통해 240개국에 공개된 '이재, 곧'은 일주일 만에 전 세계 43개국에서 톱10에 진입했다. 지난 3일 종영한 MBN 드라마 '완벽한 결혼의 정석'도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회귀물이다. 남편이 사실 여동생을 사랑해서 자신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주(정유민)는 죽음의 순간에도 간절하게 복수를 염원한다. 눈을 뜨고 보니 결혼 전 시점에서 다시 태어난 이주는 남편과 가족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여동생 유리가 사랑한 남자 서도국(성훈)과 계약 결혼을 선택한다. 내달 1일 처음 방송하는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도 절친과 남편의 불륜을 목격한 여자의 통쾌한 복수를 그린 회귀물이다. 드라마는 가장 친한 친구와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살해당한 감지원(박민영 분)이 10년 전으로 회귀해 인생 2회차를 경험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원래는 참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삶의 태도를 180도 전환하고 운명을 바꿔나간다. 죽었다가 되살아난 주인공이 앞서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삶을 재설계하는 서사를 특징으로 하는 회귀 판타지물은 고단한 삶을 살던 주인공이 인생 역전에 성공하는 판타지는 누구에게나 있는 욕망이란 점에서 인기가 높은 소재다. 웹툰과 웹소설 분야에서 먼저 주류 장르로 자리 잡았고, 인기작들이 영상화되면서 방송가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다시 태어나서 인생을 리셋하는 판타지 회귀물은 여러 번의 삶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소재"라며 "특히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정서를 가진 청춘들에게 주는 대리만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웹툰과 웹소설에서 넘어와 드라마에서도 하나의 장르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데, 작품이 장르적인 매력 외에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졌는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우주소녀 새해엔 '이루리'**  
음원 실시간 차트 1위 역주행

그들 우주소녀(사진)의 '이루리'가 새해 첫날 실시간 음원 차트 정상에 올랐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루리'는 1일 오전 1시 기준 멜론, 지니, 벅스 등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19년 발매된 '이루리'는 '이루리 이루리 La / 모두 다 이뤄질 거야' 등 희망적인 가사로 매해 첫날 역주행을 기록하고 있다. 소속사는 "지난 2020년 1월 1일 차트 첫 1위를 시작으로 올해 1월 1일까지 5년 연속으로 1위를 기록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주소녀는 소속사를 통해 "이루리" 노래처럼 올해에도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주소녀 멤버 설아는 오는 23일 팀 내 첫 솔로 음반을 발매한다. /연합뉴스

**사이좋게 흥행몰이**  
연휴 '노랑'·'서울의 봄' 1·2위...디즈니 신작 '위시' 예매율 1위

최근 극장가에서 쌍끌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노랑: 죽음의 바다' (이하 '노랑')와 '서울의 봄'이 새해 연휴에도 사이좋게 관객을 나눠 가져갔다. 2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김한민 감독의 '노랑'은 지난달 30일~이달 1일 사흘간 90만9000여 명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사흘 평균 매출액 점유율은 38.7%로, 누적 관객 수는 372만여 명이다.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은 같은 기간 84만 5000여 명 (매출액 점유율 36.0%)을 모아 2위에 자리했다. 전일까지 총 1211만여 명을 동원한 이 영화는 '태극기 휘날리며' (2004)를 제치고 역대 국내 개봉작 중 19번째로 많은 관객 수를 기록한 작품이 됐다. /연합뉴스

3위는 애니메이션 '신차원! 장구는 못말려 더 무비 초능력 대결전 ~날아라 수제김밥~'으로 17만 9000여 명(7.3%)을 불러들였다. DC 스튜디오 신작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과 애니메이션 '트윅: 밴드 투게더'는 4·5위에 올랐으나 각각 16만6000여 명(7.2%), 5만4000여 명(3.4%)을 동원하는 데 그쳤다. 디즈니 신작 '위시'가 개봉하는 오는 3일부터는 순위 변동이 전망된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위시'의 예매율은 32.0%(예매 관객 수 8만1000여 명)으로 1위다. '노랑'과 '서울의 봄'은 각각 16.1%(4만1000여 명), 15.1%(3만8000여 명)로 각각 2·3위에 올라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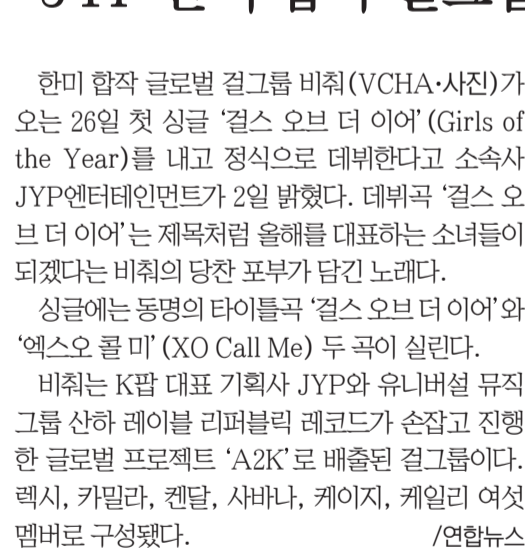


**윤여정·유해진 '도그 데이즈' 2월7일 개봉**

윤여정과 유해진이 주연을 맡은 영화 '도그 데이즈' (사진)가 설 연휴 이틀 전인 다음 달 7일 개봉한다고 배급사 CJ ENM이 2일 밝혔다. 개를 매개로 만나게 된 여러 인물의 이야기를 그린 휴먼 드라마 장르다. 윤여정은 반려견 완다와 단둘이 사는 까칠한 성격의 유명 건축가 '민상'을, 유해진은 개를 싫어하는 동물병원 건물주 '민상'을 각각 연기했다. 두 배우가 한 작품에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서형은 민상의 건물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진영' 역을, 김윤진은 초보 엄마 정아 역을 소화했다. 이 밖에도 정성화, 다니엘 헤니, 이현우, 탕준상 등 여러 배우가 출연한다. /연합뉴스

**JYP 한미 합작 걸그룹 '비취' 26일 정식 데뷔**

한미 합작 글로벌 걸그룹 비취(VCHA·사진)가 오는 26일 첫 싱글 '걸스 오브 더 이어' (Girls of the Year)를 내고 정식으로 데뷔한다고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2일 밝혔다. 데뷔곡 '걸스 오브 더 이어'는 제목처럼 올해를 대표하는 소녀들이 되겠다는 비취의 당찬 포부가 담긴 노래다. 싱글에는 동명의 타이틀곡 '걸스 오브 더 이어'와 '엑스오 콜 미' (XO Call Me) 두 곡이 실린다. 비취는 K팝 대표 기획사 JYP와 유니버설 뮤직 그룹 산하 레이블 리퍼블릭 레코드가 손잡고 진행한 글로벌 프로젝트 'A2K'로 배출된 걸그룹이다. 렉시, 카밀라, 켈달, 사바나, 케이지, 케일리 여섯 멤버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